

조선후기에 간행된 간찰서식집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Manuals for Letters in the Late Joseon Period

김 효 경(Kim, Hyo-kyoung)*

◁ 목 차 ▷

- | | |
|---------------------------|-------------------|
| 1. 머리말 | 4. 조선후기 간찰서식집의 특징 |
| 2. 간찰서식집의 史的 전개와
編纂 배경 | 5. 맺음말
<참고문헌> |
| 3. 간찰서식집의 종류와 내용 | |

<초 록>

簡札은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 그리고 날짜를 갖추어서,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과의 사회적 관계에 따라 적절한 禮法이 필요하다. 특히 간찰은 친소존비와 사회적 관계에 따라 용어가 철저하게 구별되어 있고, 또 일반 문학적인 글에 잘 쓰이지 않는 독특한 어휘·관용적 투식 등이 매우 까다롭다. 간찰서식집이 제작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간찰서식집은 중국의 書儀에서 기원하였으며, 우리나라는 金淨의 「東人例式」을 시작으로 이후 「簡式類編」·「寒暄筭錄」·「簡牘精要」·「簡牘會粹」·「簡禮彙纂」·「候謝類輯」 등이 조선후기에 간행되었다.

조선후기에 간행된 간찰서식집의 특징은 받는 사람의 尊卑層位에 따라 사용하는 용어를 본문에 구별해서 표시해 놓았다는 점, 간찰에서 많이 사용되는 용어의 동의어를 예시해 놓았다는 점, 서식집의 맨 처음에 '本朝國忌'라는 요소가 있다는 점, 전국 각 고을의 옛 이름, 서울과 지방과의 거리, 중앙과 지방의 관직명 등이 수록되어 있다는 것이다.

要語：簡札, 東人例式, 簡式類編, 寒暄筭錄, 簡牘精要, 簡牘會粹, 簡禮彙纂, 候謝類輯

*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사(kimhyo05@museum.go.kr)

접수일: 2006년 5월 12일 최초심사일: 2006년 5월 15일 심사완료일: 2006년 6월 16일

<ABSTRACT>

A Study on the Manual for Letters in the Late Joseon Period.

Letters in general consist of an addressee's name, an addresser's name, the date, and the body, and need the etiquette suitable to the social relationship between the addressee and the addresser. In particular, letters in the Joseon period used the terms strictly classified according to such a social relationship, and many unique and sophisticated idioms and expressions which were not often used in the general literature. That was why the manuals for letters were published. The manual for letters first published was the Chinese book "Sôui(書儀)", and in our country, since the first manual was compiled by Kim Chông(金淨), the publication of *Kansikryupyôn*(簡式類編), *Hanwônch'arok*(寒暄筭錄), *Kandokchôngyo*(簡牘精要), *Kandokhoisu*(簡牘會粹), *Kanryehuich'an*(簡禮彙纂), and *Husaryujip*(候謝類輯) followed in the late Joseon period.

There were several characteristics of manuals in the late Joseon period. They classified the terms used for letters according to the social position of the recipients, recorded synonyms of the terms often used in writing a letter, wrote the brief records on the earlier kings and queens, such as their death's day (*Bonchokukki*, 本朝國忌) in the beginning of the books, mentioned traditional names of each prefecture, reported distances from the capital to local cities, and described central and local official titles.

Key words : Letters, Manuals for letters, *Kansikryupyôn*, *Hanwônch'arok*, *Kandokchôngyo*, *Kandokhoisu*, *Kanryehuich'an*, *Husaryujip*

1. 머리말

간찰서식집이란 간찰¹⁾의 서식을 수록해 놓은 책이다. 간찰은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 그리고 날짜를 갖추어서, 인간사 여러 가지 일을,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과의 사회적 관계에 따라 그것에 맞는 각각의 예의를 갖춘 복잡하고 다양한 형식으로 표현된 것을 말한다.²⁾

간찰이 고문서 가운데 사적인 성격이 강하긴 하지만, 다른 문서만큼이나 서식 연구가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왜냐하면 간찰은 남과의 대응이기 때문에 반드시 받을 사람이 있다. 한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이상일 수도 있다. 특히 받는 사람이 보내는 사람보다 위계적인 관계나 사회적인 관계 면에서 윗사람일 경우에는 부르는 명칭에서부터 말씨에까지 매우 신중하게 작성해야 한다. 만약 이러한 간찰만의 독특한 서식을 지키지 않으면 받는 사람에게 失禮를 범하게 된다. 이것은 곧바로 상대방과의 인간관계에 있어서 감정에 흠을 내는 것으로 연결된다. 간찰에서 서식을 이해한다는 것은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간의 관계에 따른 복잡하고 다양한 방식의 예의와 같은 인간행위의 규범적 행태를 이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간찰서식집에 대한 연구는 지금까지 매우 미흡한 편이다. 諺簡牘에 대한 연구³⁾는 여러 사람에 의해 인간과 함께 연구가 진척되고 있지만, 특히 한문 간찰서식집에 대한 연구는 배미정⁴⁾과 필자⁵⁾ 두 사람 정도이다. 그러면 간찰에서 서식집에

1) 일반적으로 간찰이라고 하면 한문간찰과 국문간찰을 포괄한다. 그러나 국문간찰은 따로 諺簡·諺書·諺札·內簡 등의 '諺'자를 붙여 한문간찰과 구별하여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 사용하는 간찰은 한문간찰만을 지칭함을 밝혀둔다.

2) 김효경, 「朝鮮時代 簡札 書式 研究」 (박사학위논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9.

3) 홍은진, 「방각본 연간독에 대하여」, 『문헌과 해석』 통권1호(태학사, 1997).

김남경, 「〈연간독〉과 〈중보연간독〉 비교연구」, 『민족문화논총』 제24집(영남대 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01).

김봉좌, 「朝鮮時代 坊刻本 諺簡牘 研究」, (석사학위논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3).

4) 배미정, 「구양수와 소식의 척독 모음집 구조수간」, 『문헌과 해석』 통권 24호(문헌과 해석사, 2003).

5) 김효경, 「18세기 간찰교본 簡式類編 연구」, 『藏書閣』 제9집(한국학중앙연구원, 2003).

대한 연구가 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일까? 이것은 낱장 간찰의 문서 연구와 맞물려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우선 그동안 간찰에 대한 학문적인 관심이 적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자료에 접근하는 것 자체가 워낙 어려웠기 때문이다. 간찰은 상당수가 草書로 써져 있어서 글자 판독이 너무 어렵다. 조선시대 양반들은 초서로 간찰 쓰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었지만 지금은 따로 배우지 않으면 접근할 수 없다. 그리고 일반 문학적인 글에는 잘 쓰이지 않는 어휘, 관용적 투식, 上下尊卑에 따른 표현의 차이 등이 간찰에 대한 접근을 어렵게 하는 이유가 되었다. 간찰서식집이 간행되었던 것도 지배층 또는 양반들이 자신의 사회적 품위를 유지하기 위한 측면도 있지만 이처럼 한 통의 간찰을 작성하는 것이 그만큼 어려웠다는 것을 당시에 인식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조선후기 특히 19세기 이후에 방각본의 형태로 많은 간찰서식집이 간행되었다. 이러한 서식집은 조선시대 독자적으로 제작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서식집의 원형인 書儀가 중국은 이미 육조시대부터 간행되어 널리 대중에게 유통되었고, 이러한 전통이 계속 이어져 당대, 송대, 원대를 거쳐 명대와 청대는 다량의 서식집이 간행되었는데 그로부터 받은 영향이 적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16세기에 서식집이 제작된 기록이 보이지만 실물로는 18세기부터 남아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조선후기 간찰서식집이 제작되게 된 사적 전개와 편찬 배경, 그리고 실제적으로 조선후기에 어떤 종류의 간찰서식집이 편찬되었고 구성과 내용은 어떠한지, 간찰서식집의 전체적인 특징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김효경, 『寒暄節錄에 나타난 조선후기의 간찰 양식』, 『한국서지학회』 제27호(한국서지학회, 2003).

2. 간찰서식집의 史的 전개와 編纂 배경

2.1 간찰서식집의 史的 전개

간찰서식집이 제작되게 된 기원은 중국의 書儀에서 찾을 수 있다. 중국에서 문자가 만들어진 초창기에는 대나무·나무·비단 등과 같은 소재를 사용하여 간찰을 보냈고, 간찰을 쓰는 것이 매우 비밀상적이었다. 그래서 그 내용이나 목적에 있어서 처음부터 개인적 일에 서로 소식을 주고받았던 것은 아니었다. 주로 외교나 정치적인 사무를 목적으로 한 공용문서나 외교문서가 많았다. 그러다가 兩漢 시기로 접어들면서 간찰이 대단히 유행하였다. 간찰이 기존의 단순 공문서에서 개인의 사상·감정을 교류하는 개인적인 도구로 전환되었던 것이다. 東漢 이후에 종이 발명됨에 따라 간찰의 공구도 대대적으로 보급되고 편리해졌다. 간찰이 상류계층의 교류 도구로 그치지 않고 일반 문인들 사이에도 광범하게 응용되면서 간단한 안부 인사를 묻는 것에서부터 문학작품으로까지 간주하여 창작하였다. 그리고 魏晉南北朝를 거쳐 唐·宋代에 오면 산문과 함께 빛을 받으면서 충분히 발전하여 그야말로 갖가지의 내용을 간찰로 주고받았다.⁶⁾

이처럼 간찰이 개인적인 감정의 도구로 상용화되면서 자연스럽게 등장하게 된 것이 바로 書儀이다. 서의는 사람들이 지켜야 할 규범으로, 일종의 행위 규범이다. 그래서 서의에는 간찰의 程式 뿐만 아니라 관혼상제와 같은 吉凶禮에 대한 의식절차와 그에 대한 儀範이 규정되어 있다.

서의는 예의 진화과정에서 성립된 것으로 南北朝時代 때부터 제작되기 시작하였다. 중국에서는 일찍부터 예가 중시되었고, 「儀禮」·「禮記」·「周禮」 등의 예서가 종교적 의식이나 일상의 예법, 정치제도의 이상상을 비롯하여 철학적인 예의 이론 등에 광범하게 영향을 미쳤다. 그런데 서의는 그 기원이 예의 진화과정에서 한 분야로 성립한 것이지만 禮書와 달리 실생활에 대단히 긴밀하게 영향을 미쳤다. 즉 안부를 묻는 간찰이나 慰問狀·婚書는 어떻게 작성하는지, 喪事와

6) 진필상 지음·심경호 옮김, 「한문문체론」(서울:이회, 1995), 208-210.

婚事는 어떻게 거행하는지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주로 사람과의 교제상의 여러 가지 예식과 예법이 서의에 구체적으로 수록되어 있다. 오늘날에는 전해지지 않고 있지만, 『隋書』經籍志에 보면 이 당시 존재했던 서의 목록이 10여종 등재되어 있다. 謝元의 「內外書儀」, 蔡超의 「書儀」, 王儉의 「弔答儀」·「吉書儀」, 王弘의 「書儀」, 鮑行卿의 「皇室儀」, 鮑泉의 「新儀」, 梁修瑞의 「文儀」, 唐瑾의 「書儀」 등이 그것이다.

남북조시대 성립된 서의는 唐·宋代에 크게 성행하였다. 특히 唐代에는 士인들이 사회적으로 우월적인 지위와 명예를 획득하기 위해서 書儀 간행을 유행시켰고,7) 그로 인하여 唐代 사회에 규범으로서의 서의가 폭넓게 보급되었다. 杜友晉의 「新定書儀鏡」, 盧藏用的 「儀禮」, 鄭余慶의 「新定吉凶書儀」, 張敖의 「新集諸家九族尊卑書儀」 등이 바로 唐代 간행된 書儀이다. 이러한 전통은 宋代 司馬光의 「司馬氏書儀」, 元代 「居家必用事類全集」으로 이어지고, 명·청대에 이르러 무수히 많은 간찰서식집이 간행되기에 이른다.

특히 송대 「사마씨서의」는 11세기 말엽에 성립된 것이지만, 완본으로 전하는 서의 중에서는 시대도 오래되었다. 모두 10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간찰서식은 권1에 기술되어 있다. 사회적 관계에 따라 주고받는 私書와 가족 간의 주고받는 家書로 서식을 구분하였는데, 보내는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위계를 尊官·稍尊·平交·稍卑 네 단계로 구분하였다. 이것은 간찰을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과의 사이에서 발생하는 사회적·위계적 관계에 따른 禮를 표현한 것이다. 또한 이것을 통해 11세기에 이미 수수자간의 사회적·위계적 관계에 대응하는 簡札禮가 정립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司馬氏書儀」 이후에 출현하는 여러 종류의 간찰서식집에서도 사회적·위계적 관계에 따른 서열의 구분을 尊長·平交·卑幼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놓고 있다는 것이 이를 반증한다.

중국에서 서의가 제작되었다는 것은 간찰서식집의 역사적 전개로 볼 때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간찰이 선진시대에는 일반 공문서나 외교문서와 거의 구분 없이 쓰이다가 양한시대로 접어들어 간찰이 유행하면서 개인적인 내용을 주로

7) 那波利貞, 「唐代社會文化史研究」(創文社, 1977), 59-60.

담게 되었다. 기존의 일반 공문서로서의 성격이 간찰에서 많이 배제된 것이다. 이렇게 점진적으로 간찰이 사적인 성격을 지닌 것으로 변화되어 가는 시점에 간찰 쓰는 규범을 적어놓은 서의가 제작되었다는 것은 간찰이 전대에 비해 한층 전문화되고 체계화되었음을 말해준다. 소위 간찰의 程式이나 작성방식을 적어놓은 書式集이 간행된 것은 바로 書儀가 제작되어 간찰서식집의 근간을 이루었기 때문이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도 조선시대가 되면 간찰이 일상생활에서 상용화됨과 함께 자연스럽게 간찰 작성하는 방식을 적어놓은 서식집이 등장하게 된다. 현재는 우리나라에서 서의가 제작되었는 기록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중국처럼 서의가 먼저 제작되고 서식집이 편찬되는 단계를 밟았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사마씨서 의」가 국내에 유입되어 간행되었다. 이후 원·명·청대의 간찰서식집에 영향을 받기도 했으며, 중국 역대 문인들의 간찰 가운데 명문만 선정하여 모아놓은 「구소수간」이 들어와서 간행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자체 서식집이 간행되기도 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16세기 초 冲菴 金淨(1486~1521)이 35세 때에 「東人例式」을 편찬하였으며, 이후 18세기에 「簡式類編」, 19세기에 서울과 전주 등의 지역에서 방각본의 형태로 「寒暄筭錄」·「簡牘精要」·「簡牘會粹」·「簡禮彙纂」·「候謝類輯」 등이 간행되었다.

이상으로 간찰서식집의 사적 전개를 살펴보았다. 간찰서식집은 南北朝時代의 書儀가 제작되면서 시작되었는데, 이것은 간찰이 전대에 비해 한층 전문화되고 체계화되었음을 말해준다. 우리나라도 중국의 영향을 받아서 「사마씨서 의」와 같은 서의가 유입되었고, 조선후기가 되면서 서식집이 본격적으로 간행되어 간찰의 작성을 용이하게 하여 양반 계층들만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간찰문화가 서민에게 까지 확대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2.2 간찰서식집의 編纂 배경

간찰서식집은 간찰을 온전히 쓰기 위해 피봉에서부터 내지에 이르기까지 작성

하는 순서와 사례를 수록해 놓은 일종의 간찰쓰기 교본이다. 간찰서식집은 그 주요 임무가 간찰작성방식을 알려주는 것이다.

간찰은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부담 없이 편하게 쓰는 실용문임에도 불구하고 사용문자가 한자라는 점, 또 글을 만드는 노력 없이는 내용이 이루어지지 않고, 아무리 간단한 사언이라도 내용을 문장화한 솜씨가 드러난다는 점 때문에 한 통의 간찰을 작성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 더구나 양반들은 자신만의 독특한 표현이나 문구,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 층위의 사회적·위계적 관계, 복잡한 가족관계에 따라 표현하는 용어가 다르다는 점도 간찰 작성에 어려움을 더한다. 그리고 간찰도 ‘나’를 ‘남’에게 보이는 자기표현의 하나이기 때문에⁸⁾ 상대방에 대해 예의를 깎듯이 차리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요인들이 간찰 서식서에 대한 필요와 요구로 이어져서 결국 간찰서식집이 간행되기에 이른 것이다.

간찰서식집의 서문을 보면 서식집이 간행하게 된 목적은 世敎에 보탬을 주기 위한 것이 가장 컸음을 알 수 있다. 현재 전존하지는 않지만 「東人例式」을 편찬한 沖菴 金淨(1486~1521)의 연보를 보면 “세상에 전하고 있는 동인예식은 곧 선생께서 편찬한 것이니 아마도 당시 세교에 보탬이 되었을 것인저”⁹⁾라고 기록되어 있다. 즉 世敎에 도움을 주고자 김정이 직접 「동인예식」이라는 간찰서식집을 편찬하였던 것이다. 그러면 김정이 말한 世敎란 무엇을 말하는가? 18세기에 간행된 「簡式類編」의 서문을 통해서 그 해답의 실마리를 얻을 수 있다.

마음을 서로 비추는 것이 몇 마디 사이에서 벗어나지 않으니 山河가 떨어져 있지 않음이 곧 하나의 종이 위에 있다. 진실로 書尺이 世敎에 보탬이 있으니 하인과 같은 천한사람과 부인들과 같이 미천한 사람들도 하루도 (편지가) 없을 수 없다. [중략] 이에 간식유편을 간행하여 널리 그것이 傳布되기를 도모하였다. [중략] 聲聞은 비록 멀지만 한 폭의 赫蹏가 멀리 천리 顏面을 대신하고, 모여서 이야기할 길은 막혔지만 지척의 牋素가 두 사람의 간담을 세차게 관통하게 하는데 하물며 일상의 안후를 묻는 것과 경조사에 부의를 하고 축하하는 것에 대해 선현들이 簡法으로 삼지 않은 것이 없다. [중략] 程夫子가 말씀하시기를 ‘일에 응해서 사물에 접하고 정을 쏟아 부어야 뜻에 통하는데 오직 書牘이 그러하다. 그러므로 유자가

8) 「이태준 문학전집」, 書簡文講話作品世界, 18(서암출판사, 1988), 18-20.

9) “世所傳東人例式 卽先生所撰 豈當時教於濟者耶”(「沖菴集」沖菴年譜 上).

가장 가까이 일삼아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¹⁰⁾

이 서문은 1739년(영조 15) 4월 당시 통정대부 병조참의였던 柳綏¹¹⁾가 쓴 것이다. 내용을 보면 편찬자는 진실로 ‘書尺이 世教에 보탬’이 있으므로 이 책을 간행하여 널리 傳布되기를 도모하였다. 어떠한 분야이든지 특별히 교본을 제작하는 데는 항상 기성세대보다는 초학자들을 위한 배려가 담겨있다. 초학자들은 아직 공부에 있어서도 성숙하지 않았음은 물론 일상사에서 벌어지는 갖가지 행사에 인사를 차려야 할 일에 대해서도 그 절차가 몸에 익숙하지 않았을 것이다. 특히 경조사 즉 喪禮와 婚禮의 경우는 더욱더 그 절차가 까다롭고 일상의 예절과는 여러 가지 면에서 차이가 많다. 따라서 서문에서처럼 이러한 서식집을 통해 일상에서 상대방에게 안부를 위해 편지를 쓴다거나 喪事가 발생하여 慰狀을 써서 상주를 위로로 해야 할 경우 또는 혼사에 축하인사를 해야 할 경우에 바로 이러한 서식집을 보고 模本으로 삼아서 상대방에게 예의를 다하게 한 것이 바로 김정과 「간식유편」에서 말한 세교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렇게 한 통의 간찰이 완성되면 간찰은 인간의 마음을 연결시켜주는 고리로 작용한다. 즉 간찰이 발급자와 수급자 사이 천리 顏面을 대신해 주고, 또 그동안 멀리 떨어져 얘기를 나누지 못했던 양쪽의 답답한 마음을 간찰이 시원하게 풀어 준다.

이어서 程明道의 말을 인용하여 또 다른 측면의 간행목적도 설명하였다. 즉 ‘일에 응해서 사물에 접하고 정을 쏟아 부어야 뜻에 통하는데 書牘만이 오직 그러하다. 따라서 이것이야말로 儒者가 가장 가까이 일삼아야 할 것이다’고 하였

10) “方寸相照 不出數語之間 山河不隔 卽在一紙之上 則儘乎書尺之有補於世教 而興儻之賤 婦孺之微 亦不可一日無者也 [중략] 迺有此簡式類編之謀其剞劂廣其傳布也 [중략] 聲聞或曠而一幅赫蹏 遙替千里之顏面 談讌或阻而咫尺 牋素潤澈兩人之肝膽 而矧茲起居之問訊 弔慶之賻賀 莫不以先正先賢爲師法 [중략] 程夫子有言曰 應事而接物 寫情而達意 惟書牘爲然 此於儒者事最近”(「簡式類編」序)

11) 柳綏(1678~1756)는 본관은 晉州, 자는 汝懷, 호는 聖谷이다. 藥泉 南九萬의 문인으로 1705년에 생진과에 합격하여 畿甸현감을 지냈고 1721년에 증광문과를 거쳐 1723년에 영남 어사를 지냈고 이후 승정원 좌승지, 통정대부 병조참의를 지냈다.

다. 이것은 「小學」 「嘉言篇」¹²⁾에도 나오는 대목이다. 간찰만을 외곶으로 빠져서 한결같이 좋아서 집작만 하지 않은 이상 간찰은 유자에게서 반드시 익혀야 할 하나의 기예인 것이다. 肅宗 6년에 동지경연사 李端夏가 “현행 과거시험이 음석과 구두만 묻고 文意를 묻지 않기 때문에 七書[삼경과 사서]에 다 通해서 16분이 되어도 간찰을 짓지 못 한다”¹³⁾고 지적한 사실을 보더라도 이것은 확인된다.

따라서 위의 서문을 통해서 볼 때 간찰서식집의 간행목적은 두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첫째는 공부를 시작하는 초학자들이 일상사에서의 안부편지, 경조사 때 위로와 축하 인사장을 작성하는데 模本으로 삼기 위해서요, 둘째는 한통의 간찰을 쓸 줄 아는 것이 옛날부터 유자에게 있어서 일종의 필수덕목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유자들에게 간찰 쓰는 수고를 덜어주고, 또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까다로운 법도를 실추하지 않도록 해 주기 위해서 이 책을 간행하였던 것이다.

3. 간찰서식집의 종류와 내용

3.1 간찰서식집의 종류

조선후기에 간행된 각 간찰서식집의 내용을 살펴보기에 앞서 먼저 간행본의 종류를 살펴보면 다음 <표 III-1>과 같다. 본 장에서 주로 검토 대상으로 한 간찰서식집은 현재 비교적 간본이 많이 남아있는 것으로 선정하여 살펴본 것으로, 「간식유편」, 「한훤차록」, 「후사류집」, 「간독정요」, 「간독회수」, 「간례휘찬」 등이다.

도표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간식유편」을 제외하면 대부분 19세기 이후에 간행된 것이다. 이 서식집들은 대부분 민간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판각하여 출판

12) “明道程先生曰, 憂子弟之輕俊者, 只教以經學念書. 不得令作文字. 子弟凡百玩好, 皆奪志. 至於書札, 於儒者事最近, 然, 一向好著, 亦自喪志.”(「小學」 「嘉言」第五)

13) “同慶筵李端夏言 近來科規大誤 明經科則大典云 融通文義者 與通性 而今則只取音釋句讀 不問文義 故得十六分者 不能爲書札”(「朝鮮王朝實錄」 肅宗6년 10월 乙卯(條))

한 방각본¹⁴⁾으로, 주로 편찬자나 간행처 미상을 제외하면 서울지역에서 간행된 京板과 전주에서 간행된 完板이다.

<표 III-1> 조선후기에 간행된 간찰서식집 목록

번호	서명	간행년도	편찬자 또는 간행처	판본	책수
1	簡式類編	1739	이인석	목판	1책
2	寒暄筭錄	간년미상 (19세기 초)	미상	목판, 목활자	5권3책
3	簡牘精要	1861	由洞(서울), 西溪(서울)	목판, 목활자	1책
		1869	武橋(서울)	목판	1책
4	簡牘會粹	철종년간	미상	목판	1책
5	候謝類輯	1869	武橋(서울)	목판	1책
6	簡禮彙纂	고종년간	孝橋(서울)	목판	1책
		1899	完山(전주)	목판	1책

3.2 개별 간찰서식집의 내용

3.2.1 簡式類編

「간식유편」은 1739년(영조 15) 4월 통정대부 병조참의였던 柳綏¹⁵⁾(1678~1756)가 서문을 쓴 것으로 보아 18세기 중엽에 편찬된 간찰서식집이다. 유수가 쓴 서문에 의하면 편자는 李寅錫이다. 이인석의 자는 天賚라고만 되어있을 뿐 기타 인물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알 수 없다. 현재 목판본과 필사본이 전해지고 있는데 목판본은 한국학중앙연구원(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藏 4-6755)이외에 국립중앙도서관과 경북대학교에 소장되어 있다.

14) 방각본은 주로 간행·판각된 지역에 따라 서울의 京板, 전라북도 전주의 完板과 태인의 泰仁板, 경기도 안성의 安城板, 전라남도 나주의 錦城板, 경상도 대구의 達城板 등으로 구분된다. (김봉좌, 앞의논문, 12)

15) 柳綏는 본관은 淸州, 자는 汝懷, 호는 聖谷이다. 藥泉 南九萬의 문인으로 1705년에 생진과에 합격하여 1721년에 증광문과를 거쳐 1723년에 영남어사를 지냈고 이후 승정원 좌승지, 통정대부 병조참의를 지냈다.

구성방식은 크게 錢謙益의 「簡式類編」¹⁶⁾과 金淨의 「東人例式」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것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음 <표 III-2>를 만들었다.

전겸익의 「간식유편」은 皇明諸大家尺牘, 주자의 「家禮」, 百家 등 3종류를 저본으로 편차되었다. 이 가운데서 특히 弔狀式은 주자의 「家禮」가운데 「喪禮」편에 있는 것을 거의 그대로 가져다가 이 책에 수록해 놓았다. 간찰서식집에 수록된 弔狀式이 주자가례에 근원을 두고 발전한 것이라고 추정하였지만 지금까지 구체적인 근거자료가 발견되지 않아서 단정을 내리지 못하였는데, 「간식유편」은 본문에서 주자의 「가례」에 나오는 조장식을 하나하나 예로 제시해가며 분명하게 밝히고 있으므로 주목을 끈다.

한편, 이인석은 기존의 전겸익 「간식유편」이 중국의 간찰 예식을 기준으로 편차되었으므로 내용에 있어서 우리나라 풍속과는 거리가 먼 것이 있을 수 있다고 염려하였다. 그래서 당시 조선에 널리 유포되어 있던 김정희의 「동인예식」을 가져다가 첨가해 넣었다. 「동인예식」은 冲菴 金淨(1486~1521)이 35세에 편찬한 간찰교본인데, 「간식유편」에서 「동인예식」을 보고서 補入한 곳은 전체 중에서 두 곳이다. 《往書式》의 「封緘類」와 「具名類」이다. 우리나라와는 문화적 특성, 사회 신분질서, 관직이 다르기 때문에 중국의 간찰교본이 모든 면에 광범하게 적용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여겨진다.

16) 전겸익(1582-1664, 明末清初 사람)의 「牧齋全集」 40책(文明書局, 1910, 고려대 한적실 소장)을 실사한 결과 「간식유편」이 수록되어 있지 않아 현재로서는 원문 확인이 어려운 상태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서문의 내용과 본문에서 「간식유편」 제목아래 “虞山牧齋錢謙益編次”라고 기재된 것을 통해서만 이 책이 전겸익의 「간식유편」을 보고 간행하였음을 추정할 뿐이다.

<표 III-2> 「간식유편」의 구성

본문 구성		저본	비고
《往書式》	稱呼類, 封緘類, 具名類, 間濶類 瞻仰類, 即日類, 時令類, 伏惟類 起居類, 欣喜類, 自舒用, 少稟類 入事類, 臨書類, 保重類, 結尾類 祈亮類	皇明諸大 家尺牘	錢謙益의 「簡式類編」
《答書式》	稱呼類, 封緘類, 具名類, 間濶類 瞻仰類, 辱承類, 審知類, 時令類 起居類, 欣喜類, 自舒用, 入事類 因便類, 保重類, 結尾類, 祈亮類		
文字類, 彙言類, 宴請類, 賞花類, 餽服用類, 餽器用類, 餽食物類, 餽禽畜類, 壽誕類, 仕進類, 婚姻類, 誕育類, 薦引類, 託浼類, 邀約類, 規戒類, 酬謝類, 借貸類, 交財類, 干助類, 慰問類			
帛狀式			
家庭類, 通候類, 失候類, 憶別類, 叙論類, 羨慕類, 創造類, 裁答類		朱子の 「家禮」 喪禮篇	
· 《往書式》의 封緘類 · 《往書式》의 具名類(일부)		百家	金淨의 「東人例式」 補入

「간식유편」은 전체적으로 《왕서식》¹⁷⁾과 《답서식》¹⁸⁾ 30개 범주¹⁹⁾로 나누어져 있다. 먼저 《왕서식》과 《답서식》에는 간찰 한통을 쓰는 데 들어가야 할 구성요소를 각각 17가지와 16가지로 분류해서 기록해 놓았다. (표III-2 참조)

먼저 《왕서식》을 보면 稱呼類, 封緘類, 具名類는 모두 피봉에 쓰는 구성요소이고, 間濶類부터는 내지에 사용되는 구성요소이다. 間濶類부터 欣喜類까지는 수신자, 自舒類는 발신자 자신의 안부, 少稟類와 入事類는 화제를 다른 쪽으로 돌리거나 간찰을 쓰게 된 본격적인 사연이 들어가는 대목, 臨書類에서 祈亮類까지는 마무리 단계이다. 간찰에서 본 사연이 들어가는 곳을 제외하고는 間濶類

17) 상대방에게 처음 편지를 쓸 때 들어가야 할 구성요소를 모아 놓은 것을 말한다.

18) 상대방이 보내 준 편지를 받고 답장 쓸 때 들어가야 할 구성요소를 모아 놓은 것을 말한다.

19) 30개 범주는 [표 III-2] 참조.

부터 欣喜類까지와 臨書類에서 祈亮類까지가 사실상 관용적인 투식에 해당한다. 「간식유편」과 같은 간찰 교본이 나오게 되는 이유 중의 하나도 이러한 완고한 투식이 많기 때문이기도 하다. 일일이 이렇게 많은 투식을 외우기란 불가능하였던 것이다. 《답서식》은 《왕서식》과 거의 동일하다. 단 辱承類, 審知類, 因便類 3가지 구성요소에서만 차이를 보인다.

《왕서식》과 《답서식》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은 문자류와 휘언류를 제외하고 본 사연에 들어갈 다양한 실례들에 대한 예시이다. 왕서와 답서의 표현을 같이 실어 놓았다. 상대방에게 잔치 또는 꽃 감상하러 올 것을 초청하는 경우, 의복·기물·음식물·기축 등을 보내 줄 것에 대한 요청 또는 이것을 借貸하는 것, 생일이나 祝壽·관직 승진·자녀의 탄생과 繼子를 세운 것·혼인에 대한 축하인사, 사람을 천거하는 경우 등이 있다. 한편 나쁜 일에 대한 위로의 예도 있다. 과거에 낙방했거나 송사나 탄핵에 휘말린 경우, 감옥에 갇혔거나 유배를 간 경우, 병환이 든 경우, 그리고 喪事를 만났을 경우 위문과 위장을 보내는 것이 그것이다. 이 밖에 벗을 전별하는 경우, 博奕에 대한 경계의 예도 실려 있다.

3.2.2 寒暄節錄

「한훤차록」은 간행시기에 대해서는 서·발문이나 범례, 간기사항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 편찬 시기나 배경, 간행 연도 등을 정확하게 알 수 없다. 판본은 목판본과 목활자본²⁰⁾이 주로 전래되고 있는데, 다만 이러한 판본을 통해서 19세기에 간행되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20) 목활자본은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D4B 1), 국립중앙도서관(일산古 367-19), 영남대학교 중앙도서관(443971) 등에 소장되어 있다.

보내는 실례가 풍부하게 제시되어 있다는 점이다. <표 III-3>에서도 볼 수 있듯이 「한훤차록」의 경우 간찰의 내용을 시작하는 부분인 ‘기두류’ 범주에서 실례를 10지로 구분하여 수록해 놓았고, 자신의 안부를 저하는 ‘조안류’ 범주 역시 9가지로 용례를 구분하여 수록해 놓았다. 비단 이것만이 아니다. 내지에서 사연의 부분이 권4와 권5에 걸쳐 매우 다양한 실례가 수록되어 있다.

마지막은 상례 때 보내는 간찰서식을 별도로 설정해 놓았다는 점이다. 國喪을 포함하여 부모상· 조부모상· 숙부모상· 형제상· 아내상· 자식의 상· 며느리와 딸의 상· 일가친지 그리고 緇禮까지 가족과 일가친척 간에 발생하는 喪事를 구분하여 그에 맞는 표현을 수록해 놓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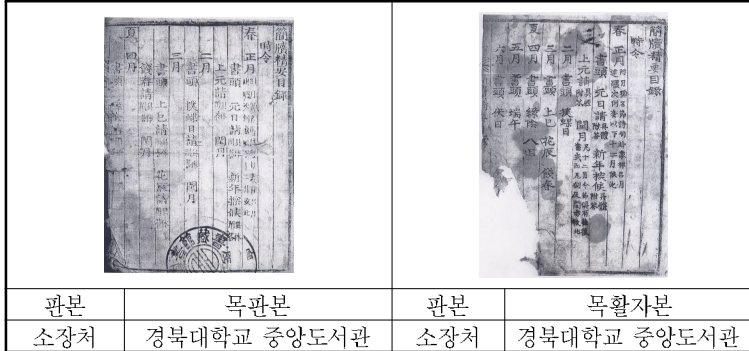
<표 III-3> 「한훤차록」의 각 권별 목록 순서

天	권1	重封式	營鎮類 → 節下類 → 執事類 → 開塚類 → 上書類
		皮封式	兄主類(또는 碩士類·大監類·尊丈類·老兄類·衙門類·某官類) → 台座類(또는 侍案類) → 拜候類 → 謹封類
		寄狀의 작성순서	省禮類 → 起頭類(十) → 未審類 → 時令類 → 氣候類 → 萬安類 → 伏慕類 → 第類(三) → 仰念類 → 小生類 → 粗安類(仇) → 就告類 → 饋遺類 → 結語類 → 不備類 → 伏惟類 → 鑑察類 → 上候類 → 年月類 → 姓名類 → 再拜類
地	권2	答狀式	起頭類(十) → 匪意類 → 禱中類 → 謹審類 → 時令類 → 氣候類 → 萬安類 → 伏慰類 → 第類 → 示意類 → 感荷類 → 辭謝類
	권3	실례 1 (喪과 관련)	國哀類, 父母喪類, 祖父母喪類, 叔父母喪類, 兄弟喪類, 妻喪類, 子喪類, 子婦喪類, 女喪類, 天憾類, 一家喪類, 親知喪類, 緇禮類
人	권4	실례 2 (사연)	邦慶類, 重試類, 大科類, 小科類, 發解類, 赴學類, 落榜類, 生男類, 過婚類, 婚書類, 升擢類, 藩閫類, 邑鎮類, 筮仕類, 復職類, 赴任類, 赴燕類, 補外類, 謫謫類, 宥還類, 罷官類, 解官類, 就理類, 行役類
	권5	실례 3 (사연)	問病類, 課做類, 詩什類, 勸勉類, 清趣類, 游賞類, 請邀類, 借與類, 水旱類, 歉荒類, 囑托類

3.2.3 簡牘精要

「간독정요」는 1861년(철종 12)과 1869년에 각각 간행된 간찰서식집으로, 전자

는 서울 由洞·西溪에서 후자는 武橋에서 간행되었다. 판본은 목판본과 목활자본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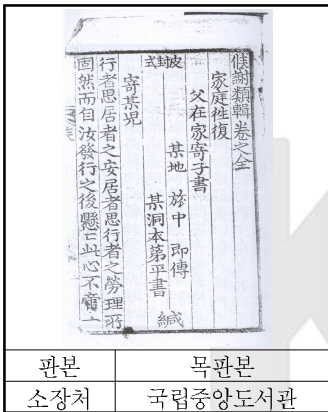
<표 III-4> 「간독정요」의 구성

本朝國忌	역대 왕과 왕비의 誕降·昇遐연도 및 왕릉 표시	
時令	正月	書頭, 元日, 新年探候, 上元, 閏月
	二月	書頭, 撲蝶日
	三月	書頭, 上巳, 花辰, 餞春
	四月	書頭, 綠陰, 八日
	五月	書頭, 端午
	六月	書頭, 伏日
	七月	書頭, 七夕, 既望
	八月	書頭, 仲秋節
	九月	書頭, 重陽, 楓辰
	十月	書頭, 雪朝
	至月	書頭, 至日
	臘月	書頭, 除夕
사연의 실례	家間往復套, 往復書頭式 讀書勸勉, 詩詞往復, 文學, 筆法, 容止, 德行, 才藝, 政事, 言語, 是非, 借求, 壽筵請謝, 婚禮, 生子生女賀謝, 薦引, 饋遺, 喪逝, 作別, 哀患, 科擧, 喪人往復, 將任, 仕官, 居留, 方伯, 守令, 闔帥, 臺彈, 譴謫, 宥還, 復職, 邦慶, 國哀, 執事類, 稱念	
부록	지역별 科試의 배정인원, 중앙과 지방의 衙門과 관직에 대한 별명, 지방의 營鎮, 팔도 각 고을의 옛 지명과 거리	

목판본과 목활자본은 내용 구성은 동일하지만, 다만 경북대 판본의 목활자의 경우 본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 ‘本朝國忌’ 부분이 누락되어 있다. 그리고 목판본은 半葉이 12행 20자인 반면, 목활자본은 반엽이 10행 23자이다. 목활자본이 목판본에 비해 책판이 크다는 차이점도 있다. 「간독정요」의 구성은 다음 <표 III-4>와 같다.

「간독정요」는 크게 본조국기, 시령, 사연의 실례, 부록으로 이루어져 있다. 다음 장에서 후술하겠지만 이같은 구성방식은 「간독회수」나 「간례휘찬」과 매우 흡사하다. 사연의 실례에는 다소 체계가 없이 이루어져 있고, 부록에는 지역별 科試의 배정인원, 중앙과 지방의 衙門과 관직에 대한 별명, 지방의 諸營과 營鎮, 팔도 각 고을의 옛 지명과 거리에 대해서 표기해 놓았다.

3.2.4 候謝類集



「후사유집」은 1868년에 간행된 간찰서식집으로, 武橋에서 간행되었다. 판본은 목판본이 있다.

다음 <표 III-5>는 「후사유집」의 구성을 도표화 한 것이다. 도표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사연에 따른 실례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간독정요」와 「간례휘찬」 그리고 「간독회수」와는 전혀 다른 구성을 보이고, 오히려 「간식유편」이나 「한훤차록」에서 왕서식과 답서식을 제외한 실례를 제시한 부분과 일치하는 부분이 많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후사유집」은 비슷한 시기에 간행된 방각본 언간독과 매우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²¹⁾

대상에 대한 실례는 다소 간략하게 가족·친척·사돈·친구 간에 주고받을

21) 김봉좌, 앞의 논문, 18.

때와 관직자에게 보내는 것으로 나눠놓았는데, 관직자 가운데 衙子弟·裨將·冊房에 대해서 간찰 쓰는 예를 따로 수록해 놓은 것이 눈길을 끈다. 지방에서는 실질적으로 고위층의 관료보다는 하급관료층인 이들과의 교류가 오히려 많은 부분은 차지하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된다. 이 책의 가장 핵심은 바로 내용에 따른 실례 제시이다. 절기 행사에 따른 초청, 한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세시인사, 자녀출산·과거합격·관료진출·자녀혼사 등에 대한 축하, 부임과 유배, 상대방이 보내준 물품에 대한 감사인사, 임금의 존호책봉이나 원자의 탄생과 같은 국가의 경사, 국상 또는 부고 등이 주된 내용들이다.

<표 III-5> 「후사유집」의 구성

대상(수신자)에 따른 실례	가족, 친척, 사돈, 친구	家庭往復, 舅甥間往復, 翁媪間往復, 親查間往復, 平交往復
	관직자	上丞相書, 上宰相書, 上大夫妻書 與衙子弟書, 與裨將書, 與冊房書
사연에 따른 실례	초청	踏橋請, 花辰請, 燈夕請, 伏日請, 秋遊請
	세시인사	舊歲, 新年
	축하	賀生男, 賀子婚, 賀女婚, 賀中初試, 賀中小科, 賀中大科, 賀子登科, 賀筮仕
	감사	謝歲餽, 謝送曆書, 謝送扇子
	국가의 경사	上尊號, 元子誕生, 上候平復, 平亂
	위로	問病
	부임과 유배	燕行, 藩任, 外任, 謫謫, 宥還
	국상과 부고	因山, 小祥, 大祥/ 弔狀
	혼서지	婚書紙
기타	詩詞往復, 勸勉, 借與, 失候	
용어	호칭	君臣, 父子, 祖孫, 兄弟, 夫婦, 叔姪, 翁媪, 師生, 朋友, 奴婢
	피봉식(부록)	某官類, 內職衙門類, 八道監營類, 四都留營類, 兵水營類, 諸營, 各邑古號道里類

3.2.5 簡牘會粹와 簡禮彙纂

「간독회수」는 철종년간에 간행된 것으로 간행처는 미상이며 판본은 목판본이

있다. 「간례회찬」은 고종 연간(1864-1873, 추정)에 孝橋(서울)와 1899년도에 完山(전주)에서 각각 간행되었다. 판본은 목판본²²⁾이 있다.

「간독회수」와 「간례회찬」의 구성은 앞에서 다루었던 「간독정요」와 매우 흡사하다. 따라서 세 간본의 구성은 다음 <표 III-6>을 보면 보다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국조본기, 시령, 사연의 실례, 부록은 공통으로 나타나고, 「간례회찬」의 경우만 국조본기와 시령의 사이에 四禮 즉 관혼상제에 대한 절차가 수록되어 있다. 각 구성에 대한 세세한 내용은 앞서 「간독정요」를 설명하면서 언급하였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생략하도록 하겠다.

<표 III-6> 「간독회수」·「간례회찬」·「간독정요」의 구성 비교

구성체제	책명	간독정요	간독회수	간례회찬
國朝本忌		○	○	○
四禮		×	×	○
時令		○	○	○
사연의 실례		○	○	○
부록		○	○	○

4. 조선후기 간찰서식집의 특징

조선후기 간찰서식집의 특징은 크게 네가지로 나뉘볼 수 있다. 우선 수신자의 尊卑層位에 따라 사용하는 용어를 본문에 구별해서 표시해 놓았다는 점이다.

22) 목판본의 간본의 형태사항은 다음과 같다.

	효교본	완산본
간기	孝橋新刊	己亥仲秋完山新刊
권책장수	1책	1책
판식	四周單邊, 半郭 23.0×16.8cm, 有界, 半葉 15행 23자, 註雙行, 上下向黑魚尾; 25.7×19.0cm	四周單邊, 半郭 20.0×17cm, 有界, 半葉 15행 28자, 註雙行, 上下向二葉花紋魚尾; 27.2×19.0cm
소장처	단국대 울곡기념도서관 古808.6 간 438나	경북대학교 중앙도서관 古808.6 간34

「한훤차록」이나 「후사류집」의 경우에는 준비에 따른 용어를 책에 직접적으로 표시를 해 놓지 않았지만 내용이나 용어를 통해 구분될 수 있도록 해 놓았고, 「간식유편」의 경우는 매우 뚜렷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별도의 표시를 해 두었다.

간찰에서 준비에 따라 용어를 차별화해 놓은 이유는 조선시대가 엄격한 신분제 사회였고 또 예의를 중시하는 사회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리고 간찰은 남과의 대응이므로 자신의 지적능력이나 문장 솜씨 또는 자신의 내면적 수양을 위해 쓰는 문학적인 글과는 다르다. 반드시 글을 받는 대상이 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상대방을 깎듯이 대우해 주고 높여주어야 한다.

「간식유편」의 준비층위는 《왕서식》과 《답서식》에서 보내는 사람을 기준으로 대략 尊長用, 尊敬用, 平交用, 卑幼用 네 가지로 구분해 놓았다. 예외적으로 소품류와 보중류에 大官用이 하나 더 구분 되어있다. 《왕서식》의 순서로 따져볼 때 封緘類, 具名類, 問濶類, 瞻仰類, 伏惟類, 起居類, 欣喜類, 自敍類, 少稟類, 保重類에서만 이 네 가지 용도에 따라 사용하는 표현이 차별화 되어 있다. 왜냐하면 稱呼類의 경우는 君臣, 父子, 祖孫, 兄弟, 夫婦, 叔姪, 翁壻, 師生, 朋友, 老幼, 奴婢 11가지로 나누어진 호칭자체에 이미 준비에 대한 표현이 함유되어 있다. 나머지 即日類·時令類·入事類·臨書類·結尾類·祈亮類도 구성요소의 성격상 간찰을 쓰는 시점, 절기를 나타내는 시령용어, 또는 사연에 들어가기 전, 결말에 해당하는 상투적 표현이므로 준비에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通用되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구명류를 예로 들어서 준비층위를 살펴보면 다음 <표 III-7>과 같다.

<표 III-7> 具名類의 준비층위

尊長用	侍教生	子 具名 拜手	平交用	弟	具名 頓
尊敬用	小弟	具名 頓首	卑幼用	大父	俺

둘째는 文字類와 彙言類를 따로 설정하여 간찰에서 많이 사용되는 용어의 동의어와 어려운 어휘들을 예시해 놓았다. 「간식유편」의 경우는 별도의 항목을 설정해서 분류해 놓았다. 문자류의 전반부는 같은 뜻을 나타내는 예들의 동의어

를, 후반부는 일상적으로 잘 쓰이지 않는 용어를 수록해 놓았다. 세주로 뜻을 보지 않고는 전혀 그 뜻을 유추하기 어려운 예가 많다. 반면 휘언류는 喪事, 疾病, 科第, 壽誕, 婚姻, 仕進, 貧富, 干求, 酬謝, 第宅, 起用, 服飾, 天道, 地理, 釋家, 飲饌, 花木, 園圃, 奴馬, 訟獄, 禽獸, 物目 등 22개 항목으로 나누어 어휘와 용례를 수록해 놓아서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다. 특히 用器에 제시된 용어는 양반들의 멋스러움을 느낄 수 있다. 달빛에 흔들거리는 주렴을 ‘鳴風’, 용 모양의 배개를 ‘遊仙’, 안석을 ‘鳥史’라고 표현하였다. 또 비녀의 단위는 ‘股’, 검의 단위는 ‘口’, 신발의 단위는 ‘兩 또는 對’, 관의 단위는 ‘頂’, 누룩의 단위는 ‘圓’이라는 표현도 당시 통용되어 사용되던 수량의 단위를 살펴볼 수 있어서 눈길을 끄는 대목이다. 한편, 「간례휘찬」의 경우는 책을 상하 2단으로 구분하여 상단에 문자류를 따로 분리해놓았다. 문자류를 본문과 분리시켜 놓음으로써 문자류만의 독립된 성격을 표시함은 물론 독자가 용어를 편리하게 찾을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셋째는 「간독정요」·「간독회수」·「간례휘찬」의 구성을 비교해 놓은 <표 III-6>에서 보았던 것처럼 서식집의 맨 처음에 ‘本朝國忌’라는 요소가 있다는 점이다. 本朝國忌에는 太祖康獻大王과 神懿王后韓氏·神德王后康氏에서부터 이 책이 간행되던 당시 임금과 왕비까지의 誕降·昇遐 연도는 물론 왕릉의 이름까지 수록되어 있다. ‘本朝國忌’의 항목이 책의 간행연도를 손쉽게 파악하는데 일조를 하기도 한다. 이러한 ‘本朝國忌’의 항목이 들어가는 것은 「고사촬요」에서 ‘本朝忌辰’이나 ‘中朝忌辰’와 같은 항목에서 유래되었을 것으로 추측하지만, 「간식유편」이나 「한훤차록」에서는 볼 수 없었던 항목이기 때문에 「간독정요」·「간독회수」·「간례휘찬」에 ‘본조국기’라는 항목이 나타나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밝히지를 못하였다.

마지막은 京畿·湖西·湖南·嶺南·海西·關西·關東·關北 등 팔도에 걸쳐 각 고을의 이름과 古號 또는 異名, 서울과 지방과의 거리, 중앙과 지방의 아문과 관직명 또는 관직의 별명이나 이명, 지방의 鎭營 등이 수록되어 있다. 이 요소는 각 서식집마다 가장 많은 공통분모를 차지하는 것이기도 하다. 지금도 편지 한 통을 부치기 위해서는 사언이 들어가는 속지를 쓰고 봉투까지 작성해야지만

편지를 부칠 수 있듯이, 조선시대 역시 간찰에서 사연만 쓴다고 완결되는 것이 아니라 사연을 담은 피봉을 작성해야만 마침내 한 통의 간찰이 완성되는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사항들은 바로 피봉을 작성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들이다.

「간식유편」이나 「한훤차록」의 경우는 본문 속에 이러한 사항이 수록되어 있는 반면, 나머지 서식집들은 뒷부분에 부록의 형식으로 첨부되어 있다. 예를 들어 「한훤차록」에 수록된 官署 별명으로 天官(吏曹), 度支·地部(戶曹), 春官(禮曹), 騎省·秋曹(刑曹), 水部(工曹), 京兆(漢城府), 金吾(義禁府), 籌司(備邊司), 惠局(宣惠廳), 內閣(奎章閣), 霜臺(司憲府), 柏府·薇垣(司諫院), 喉院·銀臺(承政院), 玉署·瀛閣(玉堂), 春坊(侍講院), 桂坊(翊衛司), 槐院(承文院), 國子(成均館), 芸閣(校書館), 內局·藥院(內醫院), 廚院(司饗院), 鴻臚(通禮院), 太僕(司僕寺), 武庫(軍器寺), 雲觀(觀象監), 太常(奉常寺), 梨園(掌樂院), 太倉(廣興倉), 豐儲(長興庫) 등이 있다. 별명의 유래가 대다수 중국에서 기원하거나 유래하였기 때문에 양반들이 오랜 기간 경전과 역사서를 통해 한문을 학습한 지식들이 농축되어 이러한 간찰서식집에 응용되어 나타났던 것으로 추측된다. 이러한 내용은 당시 양반들에게서는 당연히 상식적으로 익혀두었던 것이다. 그리고 조선시대 양반들은 古號라든가 관직의 別名이나 異名 등을 사용하여 자신의 지적수준을 은근히 드러내는 하나의 글쓰기 표현 방식으로 활용하였다.

5. 맺음말

간찰은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 그리고 날짜를 갖추어서,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과의 사회적 관계에 따라 적절한 禮法이 필요하다는 특성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떠한 문서만큼이나 서식 연구가 중요하다. 특히 간찰은 친소존비와 사회적 관계에 따라 용어가 철저하게 구별되어 있고, 또 일반 문학적인 글에 잘 쓰이지 않는 독특한 어휘·관용적 투식 등이 매우 까다롭다. 간찰서식집이 제작되는 연구도 바로 여기에 있다.

간찰서식집은 중국의 書儀라는 이름으로 일찍부터 간행되었다. 특히 송대 「사마씨서의」는 11세기 말엽에 성립된 것이지만, 이미 보내는 사람을 기준으로 위계를 네 단계로 구분하여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과의 사이에서 발생하는 사회적·위계적 관계에 따른 예를 표현하였다. 따라서 이를 통해 이미 이 당시에 수수자간의 관계에 따른 간찰례가 정립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서의 제작은 간찰서식집을 제작할 수 있게 한 근간을 마련해 주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중국에서처럼 서의가 제작되었다는 기록이 발견되지 않아 서의 제작여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지만, 「사마씨서의」와 중국 역대 문인들의 간찰 가운데 명문만 모아놓은 「구소수간」이 조선시대에 이미 유입되어 간행되었기 때문에 일정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나라 자체 간찰서식집은 기록에 의하면 김정희의 「동인예식」이 처음 편찬되었고, 이후 18세기가 되면서 「간식유편」이 간행되었고, 19세기로 접어들면서 방각본의 형태로 「寒暄筭錄」·「簡牘精要」·「簡牘會粹」·「簡禮彙纂」·「候謝類輯」등이 간행되었다.

이처럼 조선후기에 간행된 간찰서식집의 특징은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는 수신자의 尊卑層位에 따라 사용하는 용어를 본문에 구별해서 표시해 놓았다는 점이다. 둘째는 文字類와 彙言類를 따로 설정하여 간찰에서 많이 사용되는 용어의 동의어와 어려운 어휘들을 예시해 놓았다는 점이다. 셋째는 서식집의 맨 처음에 ‘本朝國忌’라는 요소가 있다는 점이고, 마지막으로 전국 각 고을의 이름과 古號 또는 異名, 서울과 지방과의 거리, 중앙과 지방의 아문과 관직명 또는 관직의 별명이나 이명, 지방의 鎭營 등이 수록되어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조선후기에 간행된 간찰서식집의 편찬배경과 종류 그리고 전체적인 내용과 특징을 구명하는 방식을 이루어졌다. 문서사에서 간찰은 다른 문서와 달리 간찰서식집이 일상생활에서 긴요하게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간찰에 대한 올바른 연구를 위해서는 실물자료와 서식집에 대한 이해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되고, 본 연구는 그 일환으로 이루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참고문헌>

1. 원전

- 「사마씨서의」.
- 「간식유편」.
- 「한훤차록」.
- 「간독정요」.
- 「간독회수」.
- 「후사류집」.
- 「간례휘찬」.

2. 단행본

- 那波利貞. 「唐代社會文化史研究」. 創文社, 1977.
- 진필상 지음·심경호 옮김. 「한문문체론」. 이회, 1995.
- 「이태준 문학전집」 書簡文講話作品世界 18. 서암출판사, 1988.

3. 논문

- 김남경. “<언간독>과 <증보언간독> 비교연구.” 「민족문화논총」 제24집(2001).
- 김봉과. “朝鮮時代 坊刻本 諺簡牘 研究.” 석사학위논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3.
- 김효경. “18세기 간찰교본 簡式類編 연구.” 「藏書閣」 제9집(2003).
- 김효경. “寒暄簡錄에 나타난 조선후기의 간찰 양식.” 「한국서지학회」 제27호(2003).
- 김효경. “朝鮮時代簡札 書式 研究.” 박사학위논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 배미정. “구양수와 소식의 척독 모음집 구조수간.” 「문헌과 해석」 통권 24호(2003).
- 홍은진. “방각본 언간독에 대하여.” 「문헌과해석」 통권1호(1997).

к с і